

## 텍사스 해변 뒤덮은 물고기 사체 ... 원인은 '저산소증'



▲ 물고기 사체로 뒤덮인 해변(왼쪽), 상어, 가오리 등 몸집이 큰 어류들도 보인다(오른쪽), 사진=퀸타나비치카운티공원

지난 6월 초, 텍사스주의 남부 브라조리아카운티의 킨타나 해변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한 채 밀려왔다. 폐죽음을 당한 어류 대부분은 멕시코만 청어(Gulf Menhaden)였다.

퀸타나비치카운티공원(Quintana Beach County Park)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어류 사체로 밭 디딜 틈 없이 폐곡히 뒤덮인 해변이 담겼다. 연안에는 해변에 채 밀려오지 못한 사체들이 둥둥 떠있다.

청어뿐 아니라 몸집이 큰 어류를 비롯해 상어, 가오리 등으로 보이는 개체들도 떠밀려왔다.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사체들도 여럿 발견됐다.

지난 13일 '뉴스펄귌' (newspenguin.com)에 따르면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텍사스공원·야생동물부 폐사·유출팀(KAST)은 급격히 상승한 수온을 대량 폐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국은 "여름에 수온이 상승하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수온이 화씨 70도(섭씨 2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특히 청어를 비롯한 일부 어류

는 산소를 얻기 힘들어져 저산소증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고기 폐죽음이 발생했던 당시 브라조리아 카운티의 기온은 화씨 92도(섭씨 33도)까지 올랐다.

폐사 전 3주 동안 파도가 잠잠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공기는 바람과 파도를 통해 바다 내부에 혼합되는데, 파도가 유난히 잔잔해 공기 중 산소가 물에 녹아들지 못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수온이 올라가고 산소가 줄어든 바다에서는 어종의 다양성이 더 적을 뿐 아니라 물고기의 성장이 저해돼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집단폐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앞으로 더 잦아질 전망이다.

텍사스A&M대학교 해양생물시설 책임자 케이티 세인트클레어(Katie St. Clair)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상승한 수온이 이번 대량 폐사에 기여한 요인일 수 있다.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 특히 얕은 바다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토,일 11:30am ~ 9:00pm  
4:30p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